

실리콘 밸리 견학을 다녀와서...

제 1 회 대학 정보통신 창업아이템경진대회 입상자의 실리콘밸리 견학지원 프로그램은 우리도 실리콘 밸리에 진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기간이었다. 5박 6일의 코스는 한마디로 훈련이었다고 할만큼 빡빡하게 채워진 일정들이었다. 그 기간동안 우리는 벤처사업을 하고 있는 여러 한국교포를 만나 그곳의 현황을 들을 수 있었다.

Webtizen Inc. 강 희 승 / 한국과학기술원 산업디자인학과

아이디어와 기술로 일확천금을 꿈꾸는 곳, 실리콘 밸리

실리콘 밸리의 벤처 캐피탈은 한국의 자본가들과는 많이 다르다. 근본적인 토양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실리콘 밸리가 기름지고 비옥한 토양이라면 어쩌면 우리는 척박한 토양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들은 좋은 씨앗을 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물과 거름을 주는 방법을 알고 있는 듯 하다. 실리콘밸리의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은 아이비 리그 계열의 MBA출신이 많다고 한다. 그들은 연합하여 벤처 캐피탈회사를 운영하고 뛰어난 안목을 가지고 확실한 투자자와 전망있는 회사를 찾아내어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투자시점에서도 우리와는 매우 큰 차이가 난다. 한국에서의 투자자들은 회사가 기반을 잡고 성장하여 매출을 올리고 가능성이 보이는 시점에서 투자를 하지만 실리콘 밸리에서는 씨앗이 심어지는 순간부터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다. 아직 개발도 되지 않은 아이디어 단계에서 투자와 지원을 하여 투자한 금액의 수백배이상을 버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은 모험을 하려 들지 않고 확 실한 곳에만 확실한 돈을 투자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투자는 벤처투자자가 아니다. 우리는 분명 좋은 씨앗을 가지고 있고, 얼마든지 크게 키울 수 있다. 그러나 언제 물을 주고 거름을 줘야 하는지를 모르는 듯 하다. 실리콘 밸리는 이미 미국이 아닌 세계라고 할 정도로 성장했고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제품이 세계시장을 석권하는 것은 이미 당연한 이야기가 되었다. 이미 많은 중국인과 인도인, 대만인, 일본인이 진출하여 큰 성공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실리콘 밸리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은 UC계열과 스탠포드등의 훌륭한 인적자원이 모여있고 밀접한 산학협동을 하고 있고 좋은 인적자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자본가들이 많다는 점이다.

실리콘밸리의 대학생들은 4년만에 대학을 졸업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한다. 대부분 6년정도 다니고 졸업을 한다고 한다. 대학에 들어가고 부터는 경제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기 때문에 학비를 스스로 벌어서 대학을 졸



업하기 위해서는 파트타임직을 갖거나 방학을 이용하여 돈을 벌고 그래도 어려우면 휴학을 하면서까지 돈을 만들어서 졸업을 한다. 그리고 파트타임직을 갖는다 하더라도 자기가 관심있는 전공분야의 일을 하기 때문에 향후 적성이나 진로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재학시절에 쌓은 경력이 졸업후 취직에도 큰 평가대상이 된다. 또한 산학협동이 활발하여 졸업전 대부분 인턴사원으로 일하면서 졸업후 교수추천을 받아 곧바로 산업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실리콘 밸리에서 놀라운 점은 한 회사에 3년이상

머무르게 되면 무능력자로 낙인찍힌다고 한다. 그곳에서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회사 보다 더 좋은 회사로 계속 옮겨 다니거나 스카웃되어 옮기게 되는 경우가 많다. 철저하게 자본주의 경제원칙대로 움직이고 그것이 생활화 되어 있었다. 우리의 생각에는 의리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곳에서는 합리적으로 통용되고 그것이 더 자연스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실리콘 밸리와 같은 환경을 만들어 기술의 메카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인위적으로 그러한 환경을 만들수도 있겠지만 실리콘 밸리는 인위적인 힘보다는 자연스럽게 형성된 하이테크지역이다.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는 지역에 지원을 하였을때와 인위적으로 형성시키고자 투자를 하는 것은 다르다. 우리 나라에서 실리콘 밸리와 같은 하이테크지역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나 대만 등 많은 나라들이 가능한 많은 벤처기업을 실리콘 밸리로 보내려고 하는 것은 그곳이 하이테크의 중심이고 그 안에서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세계 속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많은 벤처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있다. 많은 비닐하우스를 짓고 있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추운 겨울에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말이다. 필요한 일이고 지원을 해야 하지만 벤처 인큐베이터를 나와서 생존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근본적인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 많은 자본가들이 벤처에 투자할 수 있는 마인드를 심어주어야 한다. 미국의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실리콘밸리에 직접 투자한 금액은 96년도 18억불이고 97년도 27억불로 약 67%의 투자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 중에서 실패한 벤처기업을 고려하면 그 성공률은 훨씬 높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벤처기업의 성공률은 2%미만으로 우리나라의 10%보다 훨씬 낮은 수치이다. 결국 작은 실패를 감수하더라도 큰 성공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벤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벤처를 할 수 있는 지원과 환경도 중요하지만 벤처를 할 수 있는 마인드의 확립이 더욱 필요하다. ⊕